

노인대상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에 관한 연구

박기범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이에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했으며, 특히 범죄피해로부터 노인인구의 보호라는 중대한 과제가 우리사회에 주어졌다. 이에 이 연구는 이미 선진외국에서 시행되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다양한 노인대상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우리사회의 특성에 맞게 재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범죄피해 예방교육 실시, 독거노인 특별관리, 비상 핫라인 구축, 건강증진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제공 등 이다. 또한 이 연구는 범죄 피해예방 프로그램의 참여와 효과의 재고를 위하여 형사정책적 수단과 함께 운동처방적 수단도 함께 시행할 것을 제안한 학제간 연구이다.

주제어: 노인, 범죄예방, 학제간 연구

1.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에 비례하여 인간의 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1960년에 출생한 사람의 기대수명은 52.4세이었으나 2008년에 출생한 사람의 기대수명은 79.9세로 기대수명이 27.5년이나 증가하였다(OECD, 2010). 특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에도 힘입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보장비용 증가나 경제성장 둔화와 같은 노인과 관련한 각종 사회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의 범죄피해가 점차 증가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범죄피해 증가로 인해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범죄두려움이 이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20%의 노인들이 혼자서 집밖으로 외출하는데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Van Horn, 2008: 1). 더군다나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피해경험이나 지역사회 두려움보다도 노인의 사기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준오 외, 2008: 181).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처럼 우리사회의 현실은 범죄로부터 노인들의 보호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정책당국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 범죄보다 더욱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범죄의 방지가 범죄피해의 감소는 물론 노인들을 비롯한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Wikström & Torstensson, 1997).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노인인구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증가하는 노인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노인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함과 동시에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국내의 도입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형사정책이나 범죄학이 아닌 타학문 분야의 연구성과도 접목시켜 이러한 범죄피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율과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의 성격을 가진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개념과 인구 구성비

노인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나, 이에 대한 개념은 국가나 사회에 따라 또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라도 상이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확정하기란 쉽지 않다. 국제노년학회는 노인을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장준오, 2009: 220).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는 만60세를 ‘회갑년’으로 하는 전통이 남아있고, 범죄관련 통계자료나 연구논문 등에서도 ‘61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장준오 외, 2008: 32). 이에 반해 서구의 경우는 통상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도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 또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범죄백서, 2008: 467).

UN도 1952년에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대한 약정’에서 15~64세의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인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통계학, 인구학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 정의하고 있다(김병준, 2004: 10). 이 연구도 ‘노인’의 연령적 기준을 65세 이상이라는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표 1>의 통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비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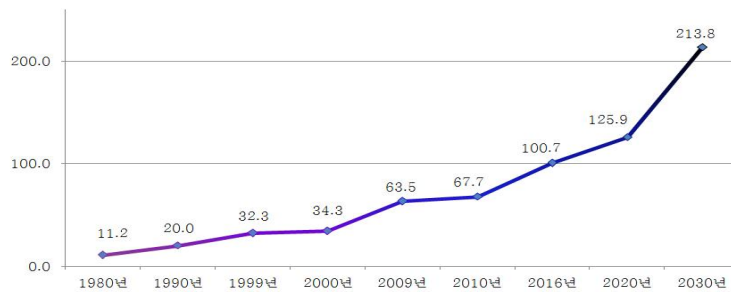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UN은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Post-Aged Society)’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할 때 한국사회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향해 가고 있다. 또한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표 1> 65세 이상 인구 및 구성비

(단위: 천명, %)

구분	1980	1990	1999	2000	2009	2010	2018	2026
총인구	38,124	42,869	46,617	47,008	48,747	48,875	49,340	49,039
65세이상	1,456	2,195	3,224	3,395	5,193	5,357	7,075	10,218
구성비	3.8	5.1	6.9	7.2	10.7	11.0	14.3	20.8

※ 자료: 통계청(2009)의 재구성.



<그림 1> 노령화 지수 추이

2. 노인의 범죄 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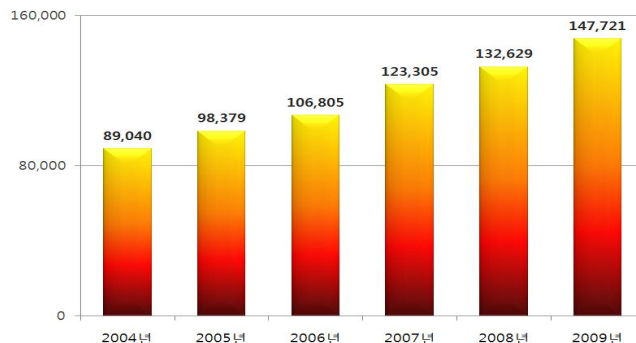
다수의 연구들이 언론, 엔터테인먼트, 상업, 정치, 과학 등과 관련한 노년층 인구의 이미지와 사회적 태도를 조사했다(Hockey & James, 1993; Palmore, 1990; Bytheway, 1995).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된 발견은 노인들이 여러 가지 난점, 즉 빈곤, 고립, 질병, 보살핌 부족, 복지삭감, 범죄피해 등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들을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으로 만드는 것이다. ‘범죄 취약성’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노인들 고유의 특성이자 일반인들이 노인들에게 가지는 대표적인 부정적 이미지이다.

우선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쇠하여 신체적으로 연약하다. 약하거나 병들어 무기력한 노인들은 자기 방어 능력이 일반 성인들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므로 동기화되어 있는 범죄자들에게 쉬운 범행 대상이 된다. 이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 있어서 범행대상으로서의 아동의 특성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래

서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날치기 범죄 등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허경미, 2004: 427-428). 또한 이처럼 신체적으로 약화된 건강으로 인해 노인들은 운동부족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노인들에게 이차노화를 가져온다(정태인 외, 2008에서 재인용). 특히 이러한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노인들은 건강증진이나 의료관련 사기범죄에 쉽게 빠지기도 한다. 실제로 노인들을 유인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효능은 물론 원산지나 성분마저 불분명한 제품들을 고가의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기행위가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http://vintageroom.kr/110102945668>).

다음으로 노인들은 범죄발생의 위험성에 대해 무지하거나 기만에 빠지기 쉽다. 그 이유로 첫째, 노인들은 현대사회와는 다르게 범죄가 위협이 되지 않았던 사회에서 성장하고 활동하였기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정세에 뒤쳐져 있어 넘쳐나는 위협들에 대비하는 방법들을 재학습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왕성히 활동하였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노인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 믿고 도왔던 과거 사회의 가치관을 간직하고 있다(Jönson, 2003: 187). 그 예로서 노인들은 ‘남에게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라는 생활습관으로 인해 모르는 사람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Sharpe, 2003: 11).

둘째, 공식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들은 고립되어 있다. 노인은 고령과 은퇴로 인한 소득 상실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감소되며,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저하되어 사회집단으로부터 소외된다(장준오 외, 2008: 33). 이러한 사회적 소외와 역할상실로 인해 노인들은 고독감과 함께 심리적 위축을 경험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정신적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그림 2>와 같이 최근 5년 새에 노인우울증 환자가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9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우울증 환자는 14만7,721명으로 5년 전인 2004년의 8만9,040명보다 1.7배 증가했다. 자료에 의하면 노인우울증의 원인은 사회적 요인과 많은 관련성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으로는 신체적 질병과 기능상실, 사별과 같은 생활사건,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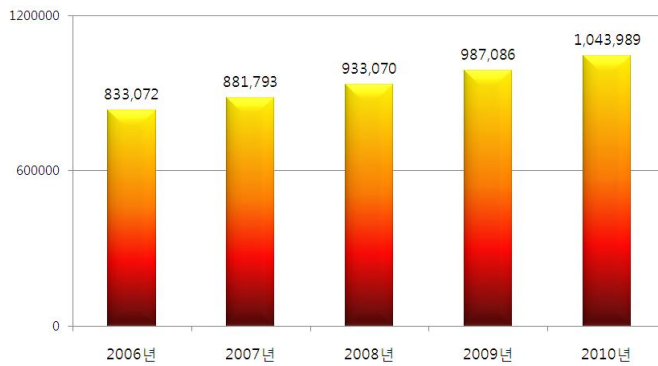


<그림 2> 65세 이상 노인우울증 진료 환자수 추이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명.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가구수가 100만을 돌파한 상태라는 우려스러운 현실이 한국사회의 노인들의 고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독거노인 가구(65세 이상 1인 가구)는 104만3989가구로 추정돼 지난해(98만7086가구)에 비해 5만 6903가구(5.8%) 늘었다. 2006년 83만3072가구였던 독거노인 가구는 2년 만에 2008년(93만3070가구) 90만가구를 돌파했고, 다시 2년 만에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경향신문, 사회면: 2010.07.22). 이러한 소외와 고립으로 인해 노인들은 사람과의 소통에 굼주려 있고, 각종 정보로부터도 단절되어 있어 사기범죄자를 비롯한 각종 범죄자들의 손쉬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은 범죄피해를 당하여도 범죄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폭력사건을 경험한 경우라도 범죄의 재발과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허경미, 2004: 428). 그 원초적 원인으로 <그림 3>의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을 돌봐줄 가까운 지인이 없는 노인들의 현실은 당해 노인을 범행의 좋은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안겨다주어 범죄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까지 기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신이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고도 그 사실조차 인지 못하거나 대응방법을 몰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낮은 신고율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있어 노인을 더욱더 훌륭한 범행대상으로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수 추이

※ 자료: 통계청, 단위: 가구.

III. 노인의 범죄피해 실태

통계를 살펴보면, 노인대상 범죄문제의 심각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1996년부터 2008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피해자는 757,994명에서 1,208,098명으로 약 1.6배 증가한 반면, 노인 피해자의 경우는 33,431명에서 110,533명으로 3.3배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를 증가율로 환산하면 전체범죄

피해자의 증가율은 59.3%인 반면에 노인 피해자의 증가율은 230%로 네 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전체 범죄피해자 중 노인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6년 4.4%에서 2008년 현재 9.1%로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 범죄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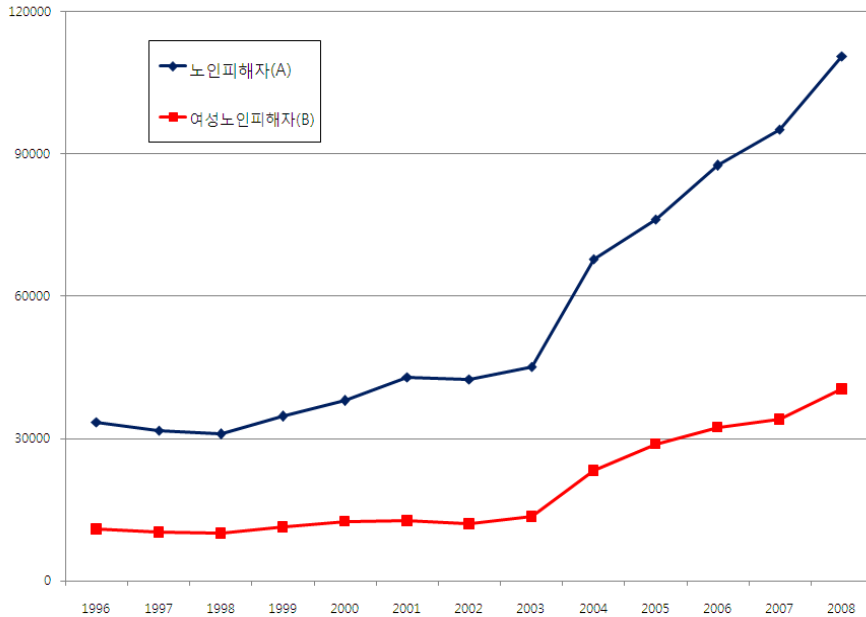
그런데 노인대상 범죄 중에서도 여성 노인피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전체 노인 범죄피해자 중 여성노인 피해자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성비를 살펴보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대체적으로 32%대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30%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2004년에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 이후 대체적으로 35%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주목하여야 할 점은 <표 2>와 같이 1996년 대비 여성노인 피해자의 증가율이 84.7%로 전체 범죄피해 증가율(12.8%)은 물론 노인 범죄피해 증가율(75.2%)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여성 노인 피해자의 경우 강력범죄 중 흉악범죄에 의한 피해가 재산범죄나 폭력범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오 외, 2008: 113).

<표 2> 우리나라 전체 범죄 피해자 및 노인 피해자

(단위: 명, %)

연도	전체범죄피해자	노인피해자	노인비(%)	여성노인피해자	성비(%)
1996	757,994	33,431	4.4	10,859	32.5
1997	707,632	31,716	4.5	10,221	32.2
1998	673,958	30,914	4.6	9,938	32.1
1999	675,353	34,643	5.1	11,303	32.6
2000	727,748	37,945	5.2	12,445	32.8
2001	733,164	42,888	5.9	12,620	29.4
2002	650,541	42,466	6.5	11,930	28.1
2003	744,243	45,156	6.1	13,474	29.8
2004	991,896	67,805	6.8	23,187	34.2
2005	983,214	76,176	7.8	28,779	37.8
2006	1,050,066	87,536	8.3	32,374	37.0
2007	1,114,601	95,178	8.5	33,993	35.7
2008	1,208,098	110,533	9.1	40,373	36.5
합계	11,018,508	736387	6.68	251,496	34.2
1996년 대비 연평균(%)	12.8	75.2	48.5	84.7	-

※ 자료: 형사정책연구원(KIC).



<그림 4> 우리나라 노인 및 여성 노인 피해자 수

2008년을 기준으로 노인의 범죄 피해를 개별 범죄별 발생분포로 살펴보면, 사기(18,078), 절도(16,795), 상해(6,435), 폭행(6,199), 강간(327), 방화(269), 도박과 복표(129), 살인(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6년 대비 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도박과 복표(778.6), 절도(375.6), 방화(218.8), 강간(188.5), 상해(137.7), 살인(102.6), 폭행(95.8), 사기(79.6)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도박과 복표 역시 필히 사기성을 수반하므로 결국 노인의 범죄피해에 있어서는 사기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고, 그 원인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속기 쉬운 노인의 속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강간, 상해, 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는데 이 역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의 노쇠한 신체적 능력이 그 원인이라 판단된다.

<표 3> 노인의 전체 형법범 피해자 및 개별 피해자

(단위: 명, %)

연도	전체형법범 죄피해자	노인의 형법범죄 피해 실태								
		형법범 피해 노인	사기	폭행	절도	상해	도박과 복표	강간	살인	방화
1996	282,066	11,600	5,164	2,804	1,493	1,263	7	50	38	40
1997	264,531	11,110	4,559	2,646	1,795	1,201	17	58	47	61
1998	266,773	12,037	5,016	3,133	2,014	1,382	18	46	51	58
1999	251,042	13,690	5,351	4,091	2,142	1,649	17	70	54	69
2000	285,519	16,155	4,992	4,713	4,070	1,848	40	63	62	84

<표 3> 노인의 전체 형법범 피해자 및 개별 피해자(계속)

(단위: 명, %)

연도	전체형법범 죄피해자	노인의 형법범죄 피해 실태								
		형법범 피해 노인	사기	폭행	절도	상해	도박과 복표	강간	살인	방화
2001	259,628	17,107	5,526	5,586	4,103	1,843	109	70	61	79
2002	413,603	22,259	5,721	5,120	4,795	1,767	97	110	56	81
2003	485,438	25,265	6,971	5,780	5,443	1,932	67	98	65	101
2004	643,744	41,782	13,777	7,823	7,808	2,984	3	166	79	151
2005	665,162	46,340	13,218	8,888	10,500	3,195	5	222	100	201
2006	699,253	51,056	14,314	6,874	11,561	5,465	98	228	109	191
2007	753,244	55,635	13,784	5,036	14,173	6,320	138	273	122	185
2008	796,865	65,173	18,078	6,199	16,795	6,435	129	327	118	269
전체 합계	6,066,868	389,209	116,471	68,693	86,692	37,284	745	1,781	962	1,57
전체대비 평균비율(%)	100	6.4	-	-	-	-	-	-	-	-
1996년기준 증가율 평균(%)	-	100	32.4	17.7	22.3	9.6	0.9	2.1	1.1	0.4
1996년기준 증가율 평균(%)	70.91	171.3	79.6	95.8	375.6	137.7	778.6	188.5	102.6	218.8

※ 자료: 형사정책연구원(KIC).

IV. 노인의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 사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더불어 노인의 범죄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노인들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교육을 명백한 목표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시 경찰의 노인지원 프로그램'과 '스웨덴 Middletown 시의 노인대상 범죄방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할 경우 노인의 범죄피해 예방 프로그램의 참여율과 효과를 동시에 재고할 수 있는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1.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시 경찰의 노인지원 프로그램

성공적인 노인대상 범죄피해 예방프로그램으로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주(California)의 클레어몬트(Claremont)시 경찰의 노인지원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Van Horn, 2008). LA에서 35마일 떨어진 인구 35,000명의 클레어몬트시는 교육중심 도시이며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영향력이 큰 도시이다. 퇴직인구와 고연령자의 증가에 따라 경찰관계자들은 이들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과 관련한 문제

들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고민을 했다. 그 결과 퇴직자, 종교지도자, 대학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노인위원회를 창설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시의회에 참여하며 경찰과 시의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경찰과 노인위원회는 인터넷 안전, 사기수법, 노인학대방지 등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그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축소이다. 일단 노인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들은 프로그램과 활동을 실천하는 대표자그룹 SALT(Seniors and Law Enforcement Together)를 창설한다. SALT위원회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범죄방지과 피해자 지원에 주력한다.

Claremont 경찰과 노인층 간의 이러한 협력확대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전략적 계획과 전망을 창출하였다. 혁신적이고 서비스지향적인 계획들로 경찰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수행과 서비스의 수준을 높였으며, 노인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도 개선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① 통신, 교육, 기술 그리고 범죄방지를 통하여 Claremont의 은퇴한 노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지역 내 비은퇴자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한다.

③ 협력기관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들을 지원한다.

④ 수요의 증가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과 카운티, 주, 연방차원의 기금을 확보한다.

Claremont 경찰당국은 이러한 목표의 성취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보제공원을 찾고 있다. 가령, 경찰지도자들은 성공적인 노인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해 지역 우편담당부처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 그 내용은 우편배달원들에게 독거노인들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여, 독거노인의 주거지에 우편물이 쌓이거나, 불이 켜져 있거나, 출입문이나 창문이 열려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찰에 알리게 하고, 경찰은 담당자를 보내 노인의 상태를 살핀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력조달과 예산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노인의 안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유용성은 최근 대구에서 50대 독신이 죽은 후 2년이나 방치된 후 백골로 발견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MBC NEWS, 2011.04.14.)

또한 경찰은 노인을 목표로 하거나 이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비교적 새로운 두 가지 기술을 채택하였다. 노인대상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는 Neighborhood E-Watch 프로그램을 통하여 Claremont시의 노인 Computer Club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경고를 보낸다. 더불어 Claremont시는 Code Red 경보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911시스템과 유사하다. 이것은 경찰조직에게 인구통계에 기초하여 도시 내의 인명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령, 경찰이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녹음된 메시지를 전송해야 할 노인대상자들에 대한 정리를 용이하게 해준다.

Claremont 경찰은 또한 노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거나 제한구역을 벗어나서 배회하는 치매노인들

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과 같은 한층 진보된 기술을 탐구하고 있다. 또한 CCTV감시시스템을 공급하는 보안회사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경찰관의 CCTV감시능력향상도 지원하고 있다. 노인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클레어몬트시 경찰의 노인지원 프로그램의 효과가 많은 부분 증명되고 있다.

2. 스웨덴 Middletown 시의 노인대상 범죄방지 프로그램

또다른 성공적인 노인대상 범죄방지 프로그램으로 스웨덴(Sweden)의 미들타운(Middletown)시의 노인대상 범죄피해방지 프로그램이 있다(Jönson, 2003). 미들타운시의 범죄피해방지위원회는 연금수령자 조직과 지역 연금수령자 단체의 제안으로 2000년부터 노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북유럽국가들은 연금수령자 단체가 지역사회의 여타의 단체보다 먼저 범죄방지 운동을 시작했다. 일부 프로그램은 피해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세대간 관계촉진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또한 스웨덴은 범죄방지를 건강과 안전이라는 더 큰 주제 속에 포함시켜 왔고, 2002년에는 스웨덴 범죄 피해자 지원협회가 노인대상의 범죄 및 학대를 다루는 운동을 시작했다.

미들타운시의 노인대상 범죄방지 프로그램 역시 노인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교육용 영상물, 소책자, 범죄방지 모임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들타운시의 범죄피해방지 영상물은 기망에 의한 절도와 소매치기 범죄피해를 드라마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데, 20분 분량에, 토론을 위한 중단이 있다.

미들타운시의 범죄방지 프로그램 영상물에는 경찰관 두 명과 범죄피해자가 출연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교육담당 경찰관도 같은 조언을 반복한다. 노인들은 현관문 밖의 누구도 믿지 말 것을 교육 받는다. 또한 참여자들은 도둑들이 모종의 위장(전화나 화장실을 쓰자거나, 마실 물을 달라거나, 꽃 배달, 상인, 이웃, 공무원, 기술자, 친척 등)으로 접근하였을 때 얼마나 속기 쉬운가에 대해 논평한다.

미들타운시의 범죄방지 정보들은 연금수령자 조직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세입자단체나 그 밖의 지역단체들에게도 주어졌다. 영상물의 사본이 노인단체들 사이에 순회방영되었고, 미들타운시의 지방방송에도 반복적으로 방영되었다. 또한 다른 도시의 범죄방지 위원회에 판매도 되었다.

미들타운시의 노인대상 범죄방지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았고 스웨덴의 광범위한 노인 범죄피해 방지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3. 노인 건강증진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노인대상 범죄피해 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할 경우 노인들의 프로그램 참가율을 높임은 물론이고, 범죄피해 예방프로그램의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범죄피해 예방프로그램과

함께 ‘노인 건강증진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다.

그 좋은 예로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동아대학교 박상갑 교수팀의 ‘장수노인교실’이 있다(박상갑 외, 2009a; 2009b; 2010a; 2010b; 2010c; Park, *et. al.*, 2008; Kwon, *et. al.*, 2010). 이 프로그램은 언양농협과 공조하여 언양지역의 노인들에게 유산소 운동, 근저항운동, 전통춤, 포크댄스 등 여러 가지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의 육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건강 향상에도 일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노인들은 운동능력의 향상은 물론이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질병까지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에게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의 건강을 개선 및 강화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사회적 교류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건강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러한 ‘노인 건강증진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범죄피해 예방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 역시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 및 향상시키는, 즉 노인복지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았을 때 두 프로그램의 궁극적 성격은 그 궤를 같이 한다.

또한 단순히 범죄피해 예방 프로그램만으로는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다. 범죄피해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참가하는 노인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노인 건강증진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담보할 수 있다. 실제로 상기의 ‘장수노인교실’ 프로그램도 노인들의 높은 호응도 때문에 참여하려는 노인들이 적체되어 있어 노인들의 프로그램 참가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이는 이미 언급한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대상 범죄피해 예방 프로그램과 함께 ‘노인 건강증진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노인들의 프로그램 참가율을 높임은 물론이고, ‘노인인구의 삶의 질 개선 및 향상’이라는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노인의 범죄 피해를 방지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대상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을 제안한다. 우선 노인의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은 구단위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단위가 광역화될 경우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지역별로 소득수준, 가옥형태, 상업 또는 산업시설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부촌과 빈촌, 주택과 다세대 연립 또는 아파트지역, 상업지역과 공단지역 등 지역의 특성에 따

라 차별화된 범죄피해 예방프로그램이 고안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주관은 경찰(구단위의 경찰청)과 구청, 그리고 대학교가 연대하여 시행한다.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범죄피해 예방교육 실시 : 우선 관할 경찰서는 노인들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교육을 개발하여 지정된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지정된 교육장에서의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아파트나 동네의 노인정을 순회하며 비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한다. 여기에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사기범죄, 절도, 강도 범죄는 물론 노인학대 방지 교육까지 포함되며, 관할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② 독거노인 특별관리 : 구청은 관내 독거노인들의 현황을 파악해 데이터화하고 경찰은 이를 특별관리 한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독거노인 담당공무원을 배치시키고 집배원이나 신문지국과 연계하여 우편물이나 신문이 쌓여있거나 현관이 열려있는 독거노인 주거지가 있을 경우 경찰에게 연락하게 하고 담당자를 보내 노인의 상태 등을 살핀다.

③ 비상 핫라인 구축 : 비상 핫라인을 구축하여 관할 내에서 절도 및 사기범죄를 비롯한 범죄가 발생했을 시 이메일로 경고메시지를 보낸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을 것이므로 부양가족들이 있는 경우는 그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며 지역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경고방송이 전달되도록 한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조차 경고방송을 하도록 독려하고, 독거노인 가정의 경우는 구청과 동사무소 담당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노인들에게 사실을 인지시킨다.

④ 건강증진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제공 : 노인대상 범죄피해 예방 프로그램과 함께 ‘노인 건강증진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실시한다. 대학은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범죄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함께 실시한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평등주의가 만연되어 노인은 부양과 존경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김병준, 2004: 9). 그 결과 우리사회는 노인의 20%가 학대당한 경험이 있고(서인균, 고민석, 2011: 139), 노인자살율이 전체 자살율의 네 배 이상 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다(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9575.html). 그러나 운이 좋다면 모든 인간은 결국 노인이 된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는 결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인간의 문제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구상한 ‘노인대상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은 개략적인 큰 틀만 제안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개발되어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의 입장에서 각종 범죄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고안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도 개선,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련된 학문분야에 화두를 제공하여 후속연구를 자극하는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연구는 학제간 연구가 강조 되고 있다. 이 연구 역시 노인의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형사정책적 수단과 함께 운동처방적 수단을 함께 제안하였다.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대규모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의 형사정책이나 범죄학 분야도 필요한 모든 여타의 학문분야와 융합하여 범죄예방 및 교정 대책을 수립하여야 효율적인 범죄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형사정책과 범죄학 분야에서 활발한 학제간 융합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 2011. 2011.3.14. 보도자료.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김병준. 2004. 한국고령화 사회에서 노인학대의 실상과 대책. 한국경찰학회보, 7: 9-33.
- 김인숙. 1998.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 사회과학연구, 11: 345-359.
- 박상갑 · 권유찬 · 김은희. 2009a. Sarcopenia 고령여성의 IGF-1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복합트레이닝이 최대산소섭취량과 근량 및 동화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 35(2): 729-740.
- 박상갑 · 권유찬 · 김은희 · 박진기. 2009b. 요가와 걷기운동이 비만 고령여성의 신체기능과 경동맥 구조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8(6): 495-502.
- 박상갑 · 권유찬 · 김은희 · 박진기. 2010a. 복합운동이 비만 중년 남성의 경동맥 최고수축기 혈류속도와 상완동맥 혈류중재 확장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9(2): 673-682.
- 박상갑 · 김은희 · 권유찬 · 박진기 · 강세영 · 장재희. 2010b. 복합운동프로그램이 Sarcopenia 여성노인을 위한 건강체력과 항노화호르몬 및 근감소증예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0(1): 435-442.
- 박상갑 · 권유찬 · 김은희 · 박진기 · 장재희. 2010c. 건강생활체조가 고혈압 노인여성의 혈압과 hs-CRP 농도 및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2(2): 985-994.
- 법무연수원. 2008. 범죄백서. 서울: 법무연수원.
- 서인균 · 고민석. 2011. 학대경험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1(1): 127-157.
- 장준오. 2009.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형사정책연구, 20(1): 215-255.
- 장준오 · 유홍준 · 정태인 · 이완수 · 노용준. 2008.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태인 · 고성호 · 이정환 · 유홍준 · 문용갑 · 이성용 · 이완수. 2008. 사회문제. 서울: 그린.
- 통계청. 2009. 장래인구추계. 서울: 통계청.
- 허경미. 2004.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423-452.
- Bytheway, B. 1995. *Ageism*.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Hockey, J. and James, A. 1993. *Growing Up and Growing Old-Aging and Dependency in the Life Course*. London: Sage.
- Jönson, H. 2003. Constructing Crime Against the Elderly in Swedish Crime Prevention Campaigns.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4(2): 180-203.
- Kwon, Y. C. and Park S. K. and Kim E. H. and Park J. K. 2008. The effect of Multi-Component Exercise Training on VO₂max, Muscle Mass, whole bone Mineral Density and Fall Risk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Women. *Japanese Journal of Physical Fitness and Sports Medicine*. 57: 339-348.
- OECD. 2010. *OECD Health Data 2010*.
- Palmore E. B. 1990.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Park JK, Nakamura YS, Kwon YC, Park HT, Kim EH, Park SK. 2010. The effect of Combined Exercise Training on Carotid Artery Structure and Function, and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in Obese Older Women. *Japanese Journal of Physical Fitness and Sports Medicine*. 59: 495-504.
- Sharpe, C. C. 2003. *Frauds Against the Elderly*. North Carolina: McFarland & Company.
- Van Horn, S. 2008. Seniors and Law Enforcement.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77(11): 1-11.

朴起範: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음주운전규제정책과 그 개선방안”으로 경찰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경찰무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환경범죄학, 민간경비, 위기관리 분야이며, 한국치안행정학회 국제위원장, 한국테러학회 상임이사, 국가위기관리학회 상임이사, 한국민간경비학회 상임이사, 대한지방자치학회 상임이사,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한국경찰연구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폭력성 범죄의 예측가능성에 관한 연구(2010), 한국 합기도 기술의 경호무도 적용(2010, 공저), Characteristics of Forest Fires in Korea and Crisis Management Policy(2011, 공저) 등이 있다(welzel@dau.ac.kr).

투 고 일: 2011년 07월 06일

수 정 일: 2011년 07월 26일

게재확정일: 2011년 08월 07일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rime Prevention and Support Programs for Elderly People

Ki Beom Park

Due to prolonged life expectancy driven by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is growing sharply these days. As a result, welfare of elderly people has emerged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offering us a crucial task to protect senior citizens against crime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introduction of crime prevention and support programs for elderly people which have been proven to have considerable effects in developed countries, and implementation of such programs reconstruc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our society. Major elements of the programs include special care for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setting up hotline system, health promotion and providing recreational programs. This study is a multidisciplinary research that proposes implementation of exercise prescription as well as criminal policy in order to promote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programs and estimation of their effects.

Key words: elderly people, crime prevention, interdisciplinary study